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성과와 전망

진 재 교*

국문초록

이 글은 1958년에 설립한 대동문화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동아시아학술원의 20년 성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2000년에 개원한 동아시아학술원은 연구기관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협업과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 연구의 통합, 대학의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결합한 전략, 학술 장에서 학술적인 장기 의제의 제안과 실현 방법론의 제시 등으로 한국 대학에서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여 년 노력의 결과 2002년 이후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학과와 한문고전번역 협동과정 등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12명이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였고, 연구과제로 참여한 박사 86명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나 학술 연구기관에 진출한 바 있다. 대학의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연구·교육의 결합 방식을 통한 성장은 한국인문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였다.

[주제어] 대동문화연구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 교육·연구의 통합, 디지털 동아시아학

목 차

- | | |
|---------------------------------|-----------------------|
| I. 대학의 연구기관과 ‘동아시아학술원’ | Ⅲ.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육·연구의 성과 |
| Ⅱ. 동아시아학술원의 발전과정: 장기 비전의 기획과 실천 | Ⅳ. 동아시아학술원의 전망 |

I. 대학의 연구기관과 ‘동아시아학술원’

현재 한국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 중에서 한국학을 내세운 연구소가 그나마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한국학 관련 연구소는 한국학을 중심에 두고 한·중·일로 시야를 넓히며 연구 활동을 하였다. 이들 연구소가 연구 범주에 중국과 일본까지 넓힌 것은 역사와 지리적 연관성도 있지만, 동아시아 삼국은 한자문화권의 同文 世界에서 제도를 공유하고 풍부하게 교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염두에 둔

*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bakun@skku.edu

다면 한국학(자국학)은 중국과 일본과의 상호 영향과 구체적인 교류의 실상을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대학의 연구소에 동양학(동아시아학)을 내 세운 것도 동아시아의 역사적 공간에서 자국학 내지 한국학의 객관성을 탐색하려는 학술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의 연구소에 ‘동양(동아시아)’를 붙인 것은 서구의 지역학과 그 길을 달리함은 물론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삼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학(자국학)의 객관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동양(동아시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 많은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소가 한국학과 관련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 내용과 학술적 시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의 한국학 관련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동양(동아시아)’를 붙인 연구소의 연구 범위가 겹친다. 그런데도 동양(동아시아)를 전면에 내세운 대학의 연구소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성균관대 東아시아學硏院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모태는 大東文化硏究院(이하 대동)이다. 대동은 1958년에 설립되어 이제 63년이 되었다. 대학 연구소에서 대동과 비슷한 역사성과 규모를 가진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는 흔하지 않다.²⁾ 동아시아학술원은 대동의 이러한 역사적 학술 전통 위에서 2000년 3월에 개원하였고, 그 산하에 대동과 3개의 연구소, 그리고 교육 기능으로 대학원과 학부를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대학은 1990년대 후반 학부제 시행 이후, 인문학이 위축되면서 동시에 대학 인문학 연구기관을 축소하거나 통합·개편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였다. 특히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기관의 개편이 많았다. 이는 대학의 구조 개혁에 따른 인문학의 위기 등 대학 내·외부 환경 변화³⁾와도 관련성을 지닌다. 한편으로 이는 각 대학이 대학의 학문 단위와 대학의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전략적 방안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학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1998년 개교 600주년을 계기로 인문학 전통의 부활을 꿈꾸며 法古創新의 기치로 동아시아학술원을 개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기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학술원은 개원과 함께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기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결합하는 융합연구, 연구기관 내에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 기능 개설, 연구와 교육의 통합시스템, 이와 함께 조선조 成均館의 圖書館인 尊經閣을 확대·개편하여 고전자료의 수집과 함께 디지털 동아시아학을 지향하는 학술정보관의 구축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기존 대학의 연구기관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비전이었다.

1) 동양학(동아시아학)을 이름에 내세운 연구소는 일단 일국적 시각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자국학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근대 동아시아는 한자문화권의 전통과 고전학 중심으로 기관의 연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학 중심의 연구소와 다소 방향성이 다르다. 이를테면 1961년에 설립된 서울대의 ‘동아문화연구소’, 1970년에 설립된 단국대의 ‘동양학연구소(현 동양학연구원)’, 2000년에 설립된 성균관대의 ‘동아시아학술원’ 등이 그러하다.

2) 연세대의 경우, 1948년 ‘동방학연구소’ 설립 이후, 1977년에 ‘동방학연구소’의 기구를 확대·개편하여 ‘국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3) 특히 인문학(한국학과 동아시아학 포함)의 환경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고등교육 정책과 연결된 교육부의 학술진흥정책이다. 1990년 후반부터 정부는 교육 제정의 확대와 함께 교육부는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술에 알게 모르게 관여하고, 정부 재정과 대학의 구조 개혁에 연결하여 그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하여왔다.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현재의 연구재단)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 관련 정책을 표방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BK21사업을 논의로 하더라도 연구자의 개인연구와 협동연구, 토대연구, 연구소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소를 견인하였다.

Ⅱ. 동아시아학술원의 발전과정 : 장기 비전의 기획과 실천

동아시아학술원의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거론하기 전에 동아시아학술원의 설립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성균관대학은 이를 위하여 대학 차원에서 여러 전공 분야의 연구자와 장기간 토론과 기획을 거치며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균관대학교가 1998년 건학 600주년을 전후로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학술적으로 되살려내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비전의 실행은 1999년도에 시작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인 BK21(두뇌한국)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00년 3월 1일에 개원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본교는 건학이념과 600년이 넘는 역사에 부합되는 동아시아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체제와 공간을 마련하였다. 1999년 600주년 기념관 준공에 맞춰 40여 년 역사의 大東文化研究院을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의 연구·교육 기관인 동아시아학술원을 설립하게 된다.⁴⁾

동아시아학술원의 설립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1단계 BK21사업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시도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비전이었다. 성균관대학교는 1999년 12월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으로 BK21 대형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성균관대학은 2000년 3월 1일에 동아시아학술원을 개원하고 선정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의 관리를 동아시아학술원에 이관시켰다. 이에 호응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결합,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통한 대학의 새로운 학술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2년 동아시아학술원은 대학원을 개설하고 교육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 처음으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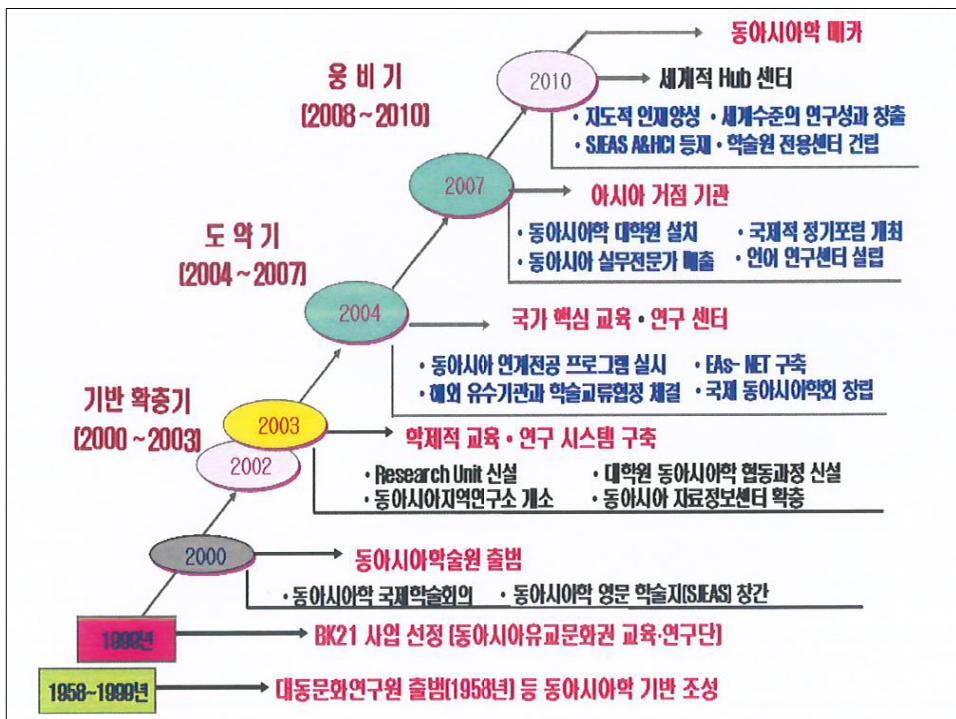
무엇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1단계 BK21사업을 주관하면서 대학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기획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소속의 여러 학과가 동참하였다. 제안서에 自國學과 일국의 시야를 넘어 동아시아학을 전면에 내 세우고,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와 함께 분과 학문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문학과 일부 사회과학의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학제 간 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학이라는 학문 단위 안에서 교육·연구를 통합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사실 대학부설 인문학 연구소에 대학원을 결합한 것은 한국 대학에서는 드문 일이다. 이는 대학본부가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본부가 교육 기능을

4) 성균관대학교 『BK21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인문사회분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지원 신청서, 1999.11.8., 28쪽.

고려하여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전임교수와 연구교수를 두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이후 교비로 전임교수 3명과 연구교수 3명을 임용하여 동아시아학술원에 소속시켰다. 이는 매우 파격적 지원이었다.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에 학과 교수를 파견하거나 겸직하는 방식이 아닌 전임교수와 연구교수를 둔 것은 이례적이었다.⁵⁾

이는 성균관대학이 동아시아학을 육성하는 장기 지원정책을 기획하여 한국학·동아시아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동아시아학술원이 이러한 대학의 비전에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⁶⁾ 이러한 대학의 장기 비전에 따라 동아시아학술원도 스스로 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10>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음은 2001년 당시 기획한 동아시아학술원의 10년 장기 비전⁷⁾이다.



동아시아학술원 발전전략 비전 2010 수립(2001년)

- 5)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에 교수와 연구교수를 두는 방식은 이후 HK 사업의 기획에 반영되었다. 주지하듯이 HK 사업에서 대학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은 연구소에 전임교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 대학의 방향과 대학 연구기관의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앞서 실천한 셈이다.
- 6) 당시 성균관대학교는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참여한 이후,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당시 동아시아학은 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10>의 4대 역점분야에 들어감으로써 재단과 학교 본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동아시아학이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이기도 하였지만, 성균관대 교신인 '仁義禮智'가 장기발전 전략의 방향인 '전통과 첨단'의 조화라는 비전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본부와 재단은 동아시아학을 장기 비전의 특성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계수준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 7) 필자는 1999년부터 시작한 1단계 BK21의 제안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동아시아학술원의 장기 비전 기획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01년에 수립한 동아시아학술원 ‘비전 2010’은 ‘기반 확충기, 도약기, 웅비기’라는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마지막 2010년에 동아시아학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성원의 노력과 대학의 지원에 힘입어 동아시아학술원은 2010년에 처음 제시한 ‘비전 2010’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비전 2010’의 실행과정에서 제1단계(1999~2005)와 제2단계(2006~2012) BK 21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어 인문학 분야 유일하게 국무총리상과 7년 연속 융합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후 제3단계 BK21+(2013~2015)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2008년에는 WCU(2008~201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 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학술원은 국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정책에 앞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가 하면, 거기에 호응하여 국책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등 선도성과 함께 비전을 실천하며 성과를 내었다. 이처럼 동아시아학술원의 비전 달성은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와 함께 시너지를 얻음으로써 ‘비전 2010’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⁸⁾

그런데 동아시아학술원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외부과제의 선정도 있었지만,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대학 본부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동아시아학술원의 비전 실현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최근 12년간 동아시아학술원의 대외 연구비의 수주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대외 연구비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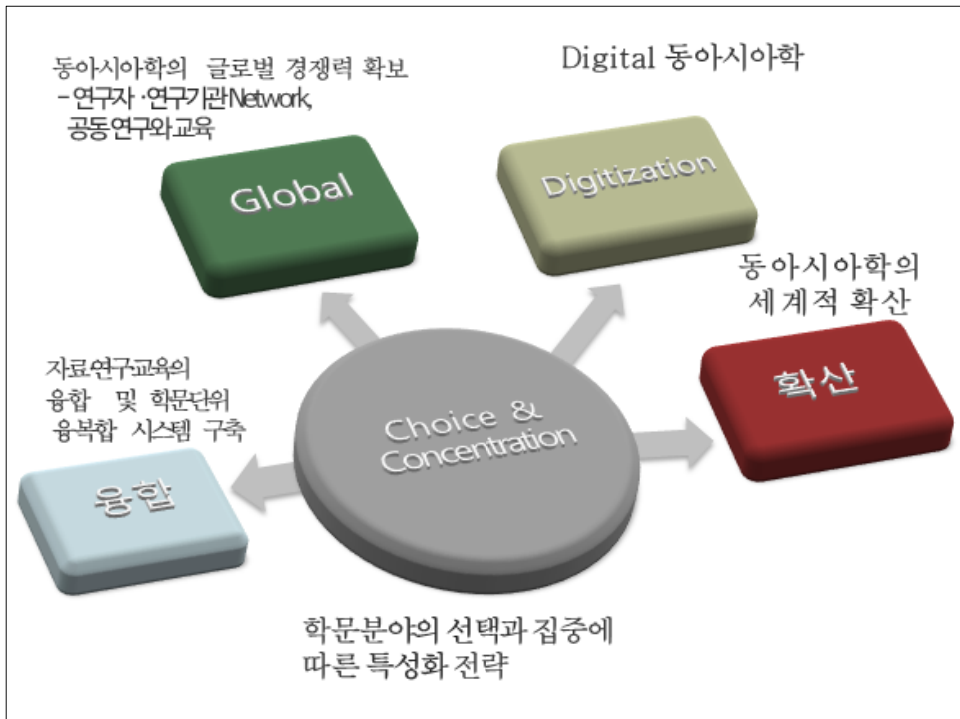
년도	연구비 수주액	년도	연구비수주액
2007년	5,707,000	2008년	5,805,000
2009년	5,384,000	2010년	5,922,000
2011년	5,678,000	2012년	6,192,000
2013년	5,618,000	2014년	7,145,000
2015년	5,944,000	2016년	4,700,000
2017년	2,660,000	2018년	3,550,000

제시한 것은 대학본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동아시아학술원이 HK나 BK 사업, 토대사업과 한국학 진흥사업 등에 지원하여 수주한 금액이다. 대략 연평균 50억 내외로 수주하였다. 이는 당시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다. 이 외에도 연구비에 부과된 간접 경비(O·H)도 활용하여 비전 달성을 위해 투여하였다.

사실 대학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비전과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전략과

8) 특히 제1단계 BK21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은 분과 학문의 틀을 넘어 융합적 모델을 제시하여 선정되었다. 선정 계기로 동아시아학술원은 연구인력의 확충과 융합학문의 인식을 교내외에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실현하는 교육·연구 방법으로 기관연구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방법은 필수적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 전략⁹⁾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기획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학술원은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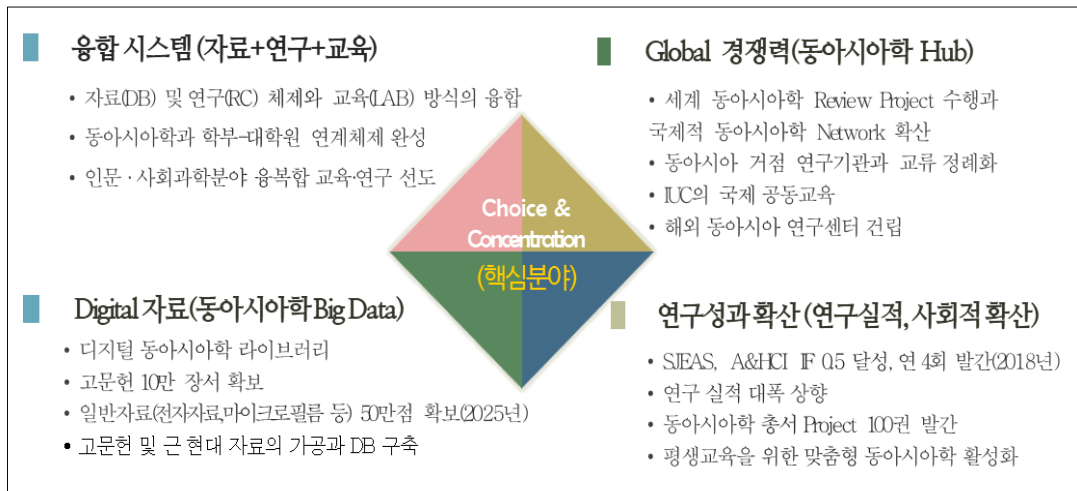


동아시아학술원의 추진전략

4가지 추진전략 방향은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하는 특성화 전략이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도 세웠다. 첫째, ‘동아시아학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기관과의 Network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 둘째, 디지털 동아시아학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료와 디지털을 결합하는 동아시아 학술정보관을 구축한다. 셋째, 자료·연구·교육의 융합과 학문 단위의 교육·연구의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동아시아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학술적 이슈를 계속 생산하여 한국발 동아시아학을 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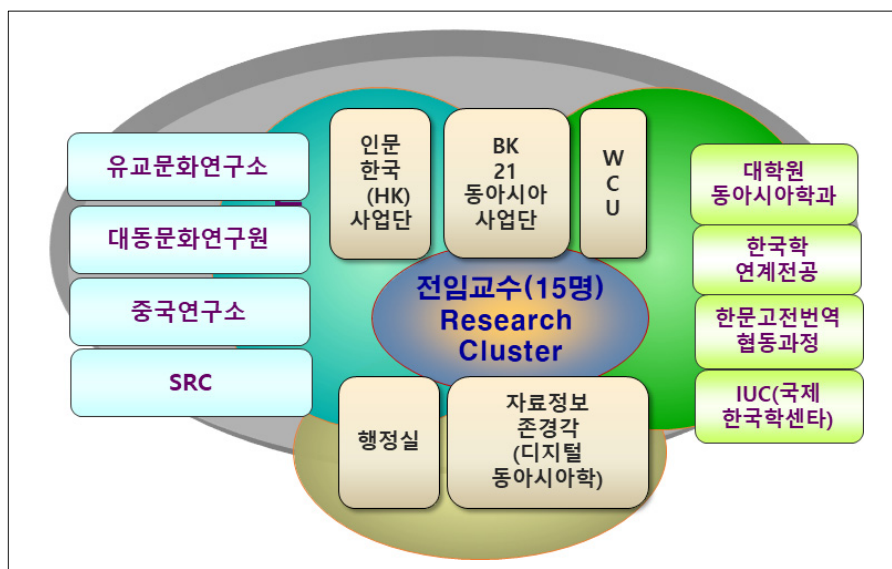
이러한 4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세부 실천 전략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추진전략과 실천 전략은 시기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엇비슷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의 발전전략

동아시아학술원은 장기 비전을 토대로 발전전략을 실천하면서 이후 소속 전임교수 15명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은 연구기능과 교육 기능의 결합은 물론, 학술정보 기능에 행정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비전 2010’을 마친 뒤 조직도의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학술원 조직도

동아시아학술원의 조직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기능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주위로 연구소와 연구사업과 교육 기능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자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가공, 그리고 빅데이터를 DB로 만드는 디지털 동아시아학을 담당하는 존경각이 자리 잡고 있다. BK21, HK·HK+, WCU와 같은 대외 연구사업의 경우, 수시로 조직도 안에 진입/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과제도 이 조직도 안에 진입/진출이 가능하고, 이 연구주제는 기본적으로 기관 연구의 장기주제(R/C)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학원 교육도 R/C나 장기연구과제와 연동되어 있으며, 변동에 따라 대학원 과목의 진입/진출도 수시로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Ⅲ.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육·연구의 성과

동아시아학술원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학을 전면에 내세워 연구하는 기관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서구 편향의 지역학(Area Studies)이나 제국학으로서의 동양학이 아니다. 일국 중심의 배타적 自國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학문 태도를 지향한다. 동아시아학은 연구의 방법이자 시각이기 때문이다. 향후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연구·교육’의 융합을 통한 학제 간 넓나 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방법과 시각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학은 유동적이다.¹⁰⁾

동아시아학술원은 2단계 BK21사업의 계획서에서 향후 동아시아학의 방향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동아시아학’은 인문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의 논리와 구조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언어·문화, 사상·이념, 정치·경제 등 다각적인 연구 시각의 경합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학의 학문 내적 구조를 다층적 복합체로 구성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동질적인 사회로 구성되지 않았듯이, 동아시아학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불균질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내재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에 근거해서 다시 동아시아를 인식하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창출하고자 한다.¹¹⁾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한 동아시아학은 다 학문의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내재적 원리를 발견하여 동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학문적 지평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HK 사업의 장기주제로 현재 인문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인문학’을 제시하였다. 사회인문학은 분과 학문의 틀을 극복하고 파편적 지식을 넘어서기 위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을 통한 공공성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사회인문학은 방법과 시각을 기반으로 인문학의 창신을 제시한 바 있지만, 대학 내의 제도적 틀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함으로써 굳건한 분과 학문의 틀 속으로 환원한 느낌이다. 사회인문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은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東方學志』 149, 2010년 3월, 1~36쪽 참조.

11)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제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205~20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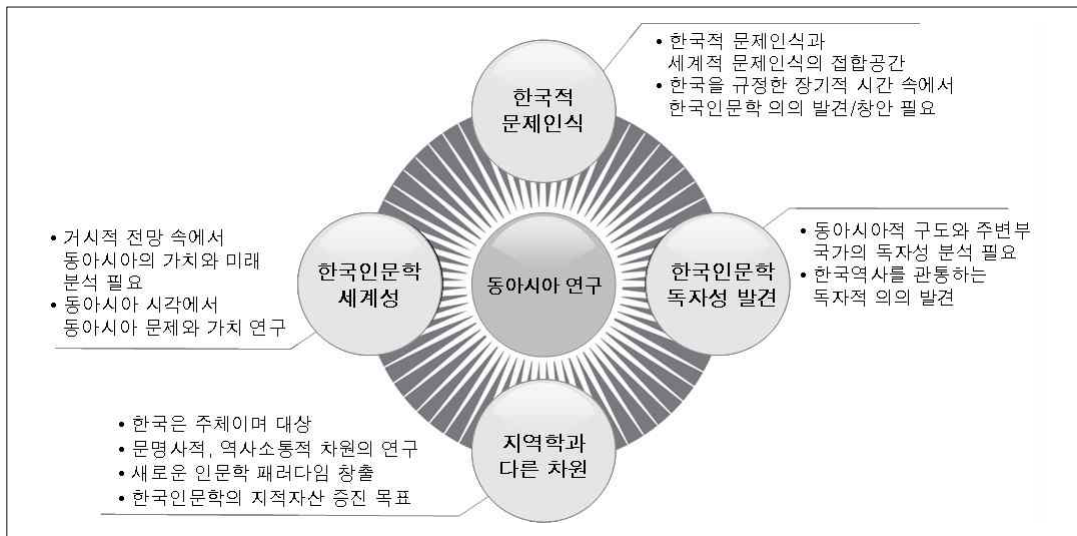
동아시아학 개념도

위에서 제시한 동아시아학 개념은 동아시아의 역사적·문화적 경험과 사회 현실을 비교·연구하여 이를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계 학계와 소통하는 방법론이자 시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아시아학은 몇 가지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국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 연구의 구체적인 학술적 의미 몇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한국적 문제의식’과 세계적 문제의식의 접합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는 일단 한국 학술의 독자적 의의를 발견하는 토대다. 주지하듯이 한반도는 ‘조공-책봉체제’와 ‘식민지-제국주의’를 거쳐 ‘냉전질서-분단’의 시대를 관통해 왔다. 동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주변부 국가로 존재한 역사적 경험이 많지만, 그 독자성의 분석은 필요하다. ‘한국’은 연구의 주체이자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한국과 인접 지역을 문명사적, 역사적 차원에서 세계화하려는 것이다. 그 범주도 근대에 들어와 확정된 국민국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징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요컨대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한국적 문제 인식을 통해 거시적인 역사적 전망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를 조망하며, 그 가치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내부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문제와 가치를 연구하는 시각과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문학의 독자성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세계성)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²⁾

12) 2007년도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 9쪽.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과 맥락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과 맥락은 한국적 문제인식을 토대로 한국 인문학의 독자성의 발견을 위하여 지역학과 다른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한국인문학의 글로벌화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두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동아시아학을 교육과 연구에서 접목하여 안팎으로 성과를 내었다. 우선 동아시아학술원은 분과 학문과 自國學의 견고한 틀과 대립하기보다 분과 학문과 접촉하며 협력하면서 분과 학문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때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내·외와 국내·외에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내 세워 기존 대학 내에서 익숙한 형태의 분과 학문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하였다. 사실 변화를 위한 견인은 개인 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대학의 제도적 틀의 변화와 변화된 제도의 틀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래야 변화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학술원은 대형 국책사업에 교·내외 다양한 분과 학문 연구자를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관련한 장기주제를 공동 연구하면서 세분화와 학문적 원심력에 치중하는 분과 학문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 방법을 집중화하고 구심화하면서 분과 학문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획의 진행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분과 학문 연구자들이 가진 분과 학문의 인식은 굳건하였다.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세분화가 도리어 학문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관성과 관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는 동아시아학술원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오랜 학문적 관성과 연구 방법을 바꾼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도 동아시아학술원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획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 장을 지속해서 제공해 주었다. 지난 20년간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구자들이 학문 간의 경계를 허

물고 동아시아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점차 확산해 가는 추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은 교육과 연구에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몇 가지 사안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1. 기관 연구(Research Cluster)와 랩(Lab)

‘기관연구’란 ‘HK 사업’처럼 대학 내의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일정한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인문학 연구자가 협업하고 장기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공계의 실험실인 랩(Lab) 방식을 활용하였다. 사실 기관연구(Research Cluster, 이후 R/C로 약칭함)는 동아시아학의 경쟁력과 대학 내 동아시아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학문 생태계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R/C는 교내의 연구자 집단이 의제를 제시하고, 동아시아학술원이 그 의제를 동의하면, 함께 연구할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확정한 R/C에 지원도 하지만, 일정한 학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단시킨다. 반면에 일정한 성과를 낸 R/C가 동아시아학술원이 관리하는 장기 R/C에 진입하고자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R/C의 진입과 진출은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도 이 R/C에 참여하여 장기주제를 토대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는 이공계의 ‘Lab’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진·출입은 물론 여기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의 진·출입도 열어두었다. 게다가 R/C에 참여하는 연구집단은 공동의 주제를 두고 학술적 성취를 내기 위해 자료의 수집과 가공, 해석과 분석 등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R/C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공동체로서 ‘Lab’ 내에서의 연구 과정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듯이 R/C에 참여한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연구 과정과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선정된 R/C에 일정 기간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는 개인 연구가 할 수 없는 장기 주제에 필요한 지원이기도 하거니와, 공동연구로 학술적 성과를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행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R/C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이 R/C의 연구주제를 확대하여 외부 연구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지원이 있다면, 연구주제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학술적 성과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외부 연구비 수주가 많은 것은 이러한 R/C를 적절하게 운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R/C의 운영은 분과 학문 전공자를 넘어 다양한 전공자가 협업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연구자 개인도 그 과정에서 분과 학문의 틀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시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동아시아학술원이 R/C를 주목한 이유다. 어찌 보면, 동아시아학술원이 시행하는 R/C는 기존 분과 학문의 대학시스템과 여기에 익숙한 개인연구가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학술 장의 제시다. 이는 대학의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자, 새로운 학술적 방법의 제기이기도 하다.

그간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대표적인 R/C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번 호	주 제	기 초 자 료	주 제
1	한자 문화권의 형성	출토 자료(죽간 및 목간)	‘동아시아’의 역사적 기원
2	인구의 장기 변동	호적 및 족보	인구학: 인적 자원 관리의 조절
3	사상과 통합의 이념	경학 자료집성 주자학 용어 검색 시스템	한국 유학(주자학)의 독자성
4	조공체제와 국제질서	연행록, 해사록	주변국과 한국의 국가 전략
5	지식과 매체	근대 신문 및 잡지 D/B	지식의 수용과 변용
6	식민지배의 유형과 특성	검열 자료, 식민지 관료 D/B	비서구 사회의 발전 유형
7	번역학의 정립	기초자료번역 및 연구성과	개념어사전 및 연구성과 번역 (영문, 중문)
8	中國發 중국 연구	China Update	중국 Trend 읽기

동양학
패권, 제국, 서구
중심, 지배,
일원적

동양학 에서 동아시아학 으로

동아시아학
공존, 평화,
주체적, 다원적

기관연구의 사례와 주제

대표적인 사례가 호적 및 족보 관련 R/C다. 호적 R/C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도 단성현 호적 전산화 사업’을 통해 호적 DB를 구축하였고, 2006년도부터 2016까지 ‘경상도 대구부 호적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여 BD로 구축하였다. 이 두 호적 DB는 ‘역사 인구학’의 새로운 학술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학계와 소통한 바 있다. 반면에 족보 R/C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근대 조공체제와 국가 질서와 관련한 연행록 R/C도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12년부터 한국학진흥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10년 동안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 R/C는 조선조 후기 연행록의 원문입력과 구두, 검색기능 등을 고려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학술원이 운영하는 R/C는 중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씨앗형 R/C도 있다. 중점형과 씨앗형은 학술적 성과 여부에 따라 진·출입이 유동적이다.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R/C를 예시하면 〈동아시아 전근대 문예·지식의 생성과 유통〉,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과 교섭〉, 〈19세기의 동아시아-변화와 지속, 관계와 비교〉, 〈동아시아 근대학술사상 및 문화제도〉 등이 있다. 이들 R/C는 참여 인원의 규모나 성과가 각기 다르지만, 꾸준히 진행하여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기관연구는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부터 제기하여 진행한 것이지만, R/C의 확대 운영과 성과는 동아시아학술원의 ‘HK 사업’에 선정된 이후 두드러졌다. R/C는 동아시아학술원이 ‘HK 사업’에서 제시한 학술 연구 방법이자 핵심적인 연구방법론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HK 사업’은 대학의 특성과 함께 대학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기관연구로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인문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기관이 설정한 R/C는 각 대학 연구소의 정체성과 성격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HK 사업'의 방향은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가 대학 내에 새로운 학술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내의 인문학 연구자를 호출하여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력을 견인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의 R/C를 통한 공동연구는 분과 학문에서 융합적 학술 장으로 견인하는 데 효율적이고 개인 연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장기주제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학술원은 예시하면 장기주제로 설정한 R/C를 통해 교내의 다른 분과 학문 연구자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는 대부분 분과 학문의 틀을 토대로 연구하고, 연구 자체도 개인연구가 많다. 이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관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월되지는 않는다. 대학의 학문 생태계를 감안하면 연구기관은 R/C를 통해 분과 학문의 연구자를 장기주제를 공동연구하는 학술 장으로 견인하고, 학문적 자극을 주거나, R/C를 통해 개인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각 대학의 인문학은 여전히 강건한 분과 학문의 틀을 해집고 들어갈 여지가 적다. 학과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 중심성이 강하다. 이러한 대학 생태계에서 학과 중심의 연구자에게 R/C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일부 연구자는 R/C에 참여하고 싶어도 학과 내부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연구자는 대학 내에서 연구자로 존재하며 연구로 자신을 증명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R/C의 확산과 이를 지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술 장에 파문을 줄 수 있는 장기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연구자를 견인해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학술원 소속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몫임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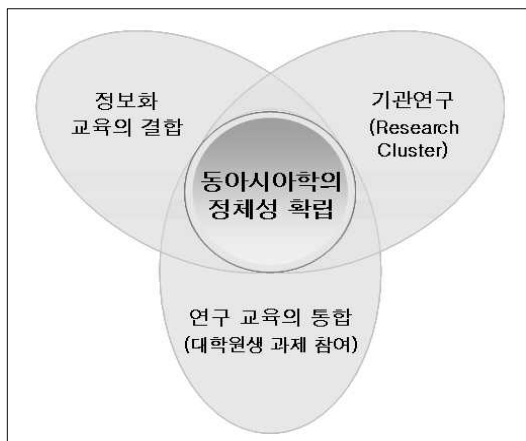
2. 연구와 교육의 결합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대에 개원하면서 교육 기능을 기획하였다. 1999년 1단계 BK21사업(1999~2006)에 선정된 이후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에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개설하였고, 2003년에 학부에 한국학 연계 전공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 기능의 신설과 함께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에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전임교원을 2명 채용하고, 소속 연구교수 3명을 채용한 뒤 대학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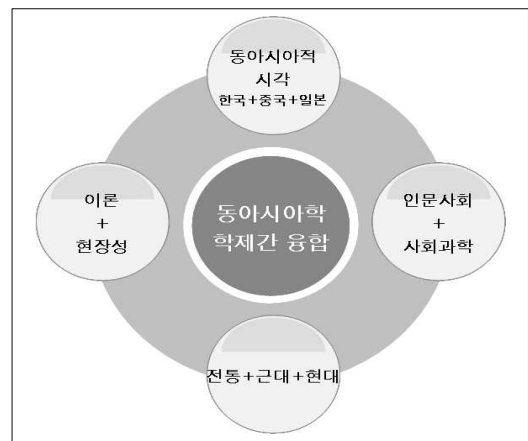
동아시아학술원에 속한 대학원 동아시아 협동 과정(2007년 이후 동아시아학과)은 설립 단계부터 교육과 연구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과 연구를 결합한 방식의 제안은 당시 대학의 학문 생태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학 관련 교육과 연구는 지나치게 전공별로 세분되어 있거나,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一國 중심의 주체적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세계 학계나 학문 보편성과 소통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서구 학계는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연구에서 구체성과 엄밀성이 부족하거나 보편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내실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연구자는 지역학의 시각으로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에 접근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 제국학의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며 세계 학계에 발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 연구풍토를 위해 학문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체계는 교육과 연구의 분리가 아니라, 이 둘을 통합하고 분과 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학제적인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에서 벗어나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로 전환하여 동아시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동아시아학과와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교육·연구의 결합과 연구 방법의 방향을 잘 포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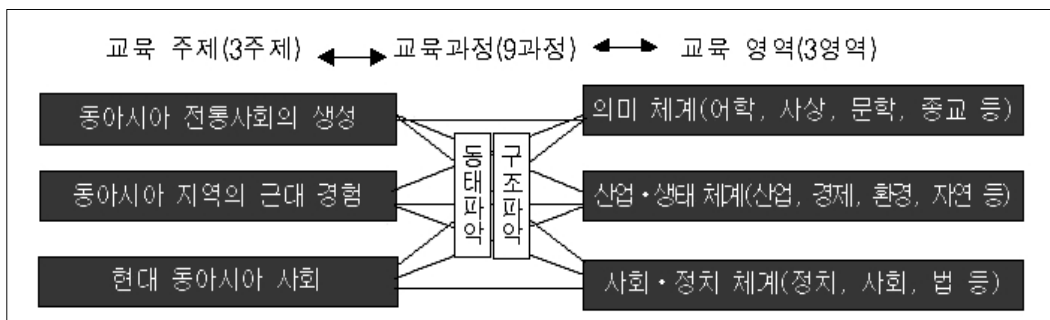


교육+연구+정보 통합교육시스템 : 동아시아학의 방법



학제 간 융합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는 연구를 토대로 한 학제 간 융합과 동아시아학의 정체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단일 전공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 및 칸막이식 분과 학문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학제적·융합적 교육·연구를 지향하고, R/C의 연구 성과를 교육에 시차 없이 접속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와 교육과정의 방향

그런데 연구를 토대로 한 교육의 방향은 세 가지 축을 설정하여 동태파악과 구조파악을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를 위해 ① 동아시아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한 교육체제 ② 전통과 근·현대를 융합한 교육체제 ③ 한국+중국+일본을 아우르는 시각의 교육체제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동아시아학과는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목을 설정하였다.

동태파악과 3가지 큰 주제를 두고, 구조파악에 3영역을 설정한 뒤 이를 교직하여 9개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향후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기 위한 고려였다. 구체적으로 ① 의미 체계(해석 및 표상) ② 산업·생태 체계(사회시대) ③ 사회·정치 체계(운영체계)이다. ①의 의미 체계에서는 어학, 사상, 종교, 문화를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의미와 표상체계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였다. ② 산업·생태 체계에서는 산업, 환경, 자연, 가족을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재 생산 구조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였고, ③의 사회·정치 체계에서는 정치, 사회, 법을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운영체제 및 원리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¹³⁾ 이는 모두 연구주제와 교육과정의 통합, 동아시아 사회의 구조파악과 동태파악을 통한 연구와 교육의 통합, 동아시아학술원의 기관연구(Research Cluster)와 교육의 결합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와 과목은 기관연구(Research Cluster)의 장기주제를 과목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결합 방식은 정규 과목 외에 R/C의 장기주제를 외부의 연구과제에 연결하는 한편, 분과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다양한 시각과 일국의 범주를 뛰어넘는 방향을 고려하여 학술적 시너지를 얻고자 하였다.¹⁴⁾ 앞서 기관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다수의 대학원생이 R/C에 참여하여 Lab 방식의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체험하면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의 기관연구에 연구자 집단 '교수-연구교수-박사 후 연구원(post-doc)-대학원생' 등이 연구팀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체험하도록 하였다. R/C에 참여하는 교수는 자신의 개인 논문 주제와 교육의 내용으로, 연구교수나 박사 후 연구원은 개인 논문으로,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술적 이슈를 장기주제로 삼아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교육 참여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또한, 1958년에 설립한 대동문화연구원을 계승한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 고전학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전자료의 간행과 보급을 선도하여 학계에 지속해서 공헌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은 국내 최초로 2008년에 대학원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고전학을 계승한다는 목표의 실천이다.¹⁵⁾ 한문 고전 자체가 분과 학문의 성격을

13)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과 제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143~144쪽.

14) 외부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제단의 BK21, HK, HK+, 토대연구, 한국학진흥사업단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의 다양한 학술 사업 등을 말한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R/C의 장기주제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체로 동아시아학과 대학원생과 연구자가 이 장기주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 과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과제에 참여한 교수는 대학원 교과목의 교육내용으로 활용하여 강의하고, 참여 연구자들은 연구보조원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주제의 설정에 간여하고, 연구 내용 등의 토론에 참여하여 학문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것이다.

넘어서고 있거니와, 대학원에서의 학제 간 교육·연구는 동아시아학 방식과 비슷하게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번역과정에서 문·사·철 분야를 비롯하여 고전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체득해야 학술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점을 고려하여 학제 간 교육·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3. 디지털 동아시아학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부터 디지털 [학술 기초 자료의 디지털화] 동아시아학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에 있는 학술·정보 도서관인 ‘尊經閣’을 자료정보센터로 전환하면서 기획하였다. 존경각은 고문헌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의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가공하여 이를 DB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존경각의 수집과 열람 기능을 개편하여 동아시아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전환하였다. 존경각은 지난 20년간 동아시아학 관련 다양한 학술 DB를 구축하여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R/C와 관련한 장기 연구주제나 방대한 기초 자료, 고전 관련 빅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협력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존경각은 동아시아학 관련 DB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에게 풍부한 학술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존경각이 동아시아학술원 내에서 자료·정보 센타 기능은 물론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허브 기능을 함으로써 연구자와 함께 교육·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경각이 추구하는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자료(디지털) - 연구 - 교육’의 One-Stop의 학문연구 융합시스템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존경각에서 DB로 구축한 대표적인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동아시아학

	디지털 동아시아학 이름	홈페이지
1	존경각고서저지시스템	http://oldbook.skku.edu/
2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
3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

- 15) 동아시아학술원은 고전학 중심의 대동문화연구원을 계승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이어 국내 최초로 한문 고전의 정리 및 번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의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이 협동과정은 국내 최초로 한문 고전의 정리 및 번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8년에 민족문화추진회(현 : 한국고전번역원)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대학원에 이 과정을 개설하였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번역의 이론과 이를 실무에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문 고전번역 학위과정(박사)의 개설을 통해 전통 학문의 방대한 자료를 현대적 학술적 자산과 결합하여 창의적인 학술 번역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교육부가 시행한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3년 동안 매년 10명의 전액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 비용을 지원받았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고전 번역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준다는 점에서 ‘고전 번역학’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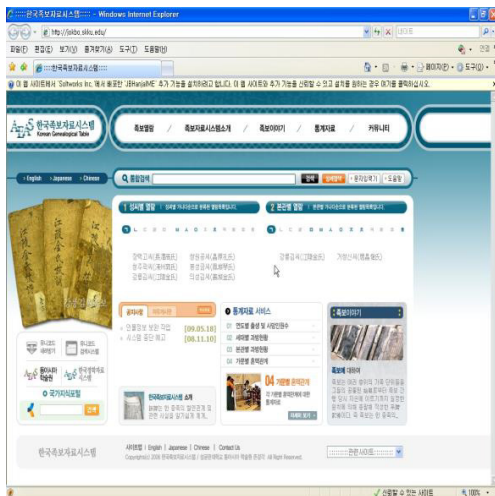
	디지털 동아시아학 이름	홈페이지
4	한국주자학용어시스템	http://jjh.skku.edu/
5	대구및단성호적DB	http://ddmh.skku.edu/
6	동아시아지식과지식인지도 ¹⁶⁾	http://jisik.skku.edu/ (작업중)
7	연행록DB	http://kcer.skku.edu/ (작업중)
8	동유럽외교문서저장관리시스템	http://hunbu.skku.edu/ (작업중)
9	한국유경데이터베이스	http://ygc.skku.edu
10	아리랑DB	http://arirang-archive.com/ (작업중)

위에 제시한 디지털 가공 자료는 단순한 입력자료가 아니다. 다양한 R/C의 연구를 통해 원문 자료를 가공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연구자를 위한 가공 자료다. 사실 자료는 날 것이 아닌 연구자의 손을 거친 가공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과가 두드러진다. 이를 고려하여 존경각은 기초 자료를 가공한 뒤, 디지털로 전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R/C와 관련한 연구주제도 이론과 관념적인 방향보다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과가 두드러지고, 그 성과물 역시 학문적 ‘리얼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학술원의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실제 참여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공간이기도 하고, 교육과 관련한 연구 활동 결과물의 제시이기도 하며, 향후 새로운 R/C를 위한 기초 자료의 빅 데이터이기도 하다. 기실 스마트 환경에서는 디지털을 통하여 학술적 자료의 수집·가공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의 시각을 생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 새로운 R/C의 창출은 물론, 아날로그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학술 장과 학술적 시각도 생성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존경각의 역할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실재를 보기로 한다.

아래에 도표로 제시한 것은 〈한국족보자료시스템〉DB와 〈한국경학 자료시스템〉DB다. 모두 존경각이 연구팀과 함께 기획하고 BD로 만든 것인데, 현재 존경각의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두 DB 모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15년 동안 단성현과 대구부 호적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DB 작업을 진행한 성과물이다. 〈한국경학 자료시스템〉은 『한국경학자료집성』은 대동이 1988년부터 11년 동안 전국에 산재한 문집과 고전문헌을 수습하여 경학 관련 부분을 집성한 것인데, 모두 145책의 영인본이다. 하지만 책으로 간행하였지만, 이 방대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색인은 물론 원문 조차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고려한 존경각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전산원에서 전담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경학자료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DB로 구축하였다. 존경각은 이 DB를 통해 한국의 경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였다. 현재 원문 검색과 색인 기능을 비롯하여 방대한 분량의 원문 자료를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6) 지식인 지도를 통한 디지털화와 동아시아학의 관련과 그 의미는 진재교(2017),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8, 119~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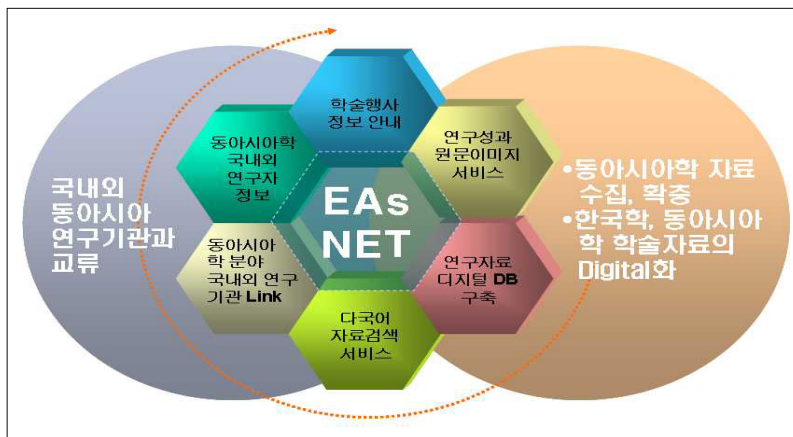
한국족보자료시스템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특히 한국의 호적과 족보의 DB화는 가족의 재구성과 계보를 추적하거나 관찰함으로써 향후, 조선 시대 사회구조와 역사 연구학 연구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술적 가공을 거친 DB의 구축은 빅 데이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호적과 족보의 인물 정보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융합적 시각과 분석방법론 등의 학술적 이슈의 생성도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근대 호적과 족보의 DB화는 친족·혼인 네트워크에 의한 계보학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비전을 지닌다.

존경각이 추구하는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尊經閣의 전략

존경각의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를 전산화, BIG-DATA 확보
-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 유교 문화, 역사문화에 대한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에서 연구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DB화하여 연구기반을 구축
- 동아시아학 자료의 전산화에 기초하여 통계학,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컴퓨터전산화 등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공동연구 추진
- 연구 분야별 전문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새로운 융합학문 연구의 기반 제공과 동아시아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제시
- 기초 자료의 가공과 DB 구축을 통하여 관련 연구의 학술적 향상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그간 존경각이 자료정보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구축한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존경각 소장 자료 현황

(2019.11.기준)

구분	고문헌	일반자료	비도서자료(마이크로필름, CD)	일반자료	총계
점(책)수	143,728	61,754	21,186	61,754	252,877

마이크로필름의 경우, 2003년에 성균관 대학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MOU를 맺어 존경각이 소장한 고서 이미지 파일과 장서각이 소장한 고서 마이크로필름을 재복사하여 맞교환한 것이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존경각의 디지털 동아시아 라이브러리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존경각은 조선조 성균관의 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서와 고문서 기증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다. 특히 고서 기증은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이후 학술정보관(예전 중앙도서관)에 수장된 고서실의 장서를 존경각으로 이관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서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다음과 같은 고서와 자료를 기증받았다.

2000년 이후 고서와 고문서 관련 기증 현황

연도	소장자/기증자	문고명	기증 책수
2000	李炳熹/李佑成, 李熙奎	省軒文庫	3,499
2000	金槐/金昌韓, 金玉基	重齋文庫	4,013
2000	金永卓	丘庸文庫	338
2000	裴錫夏/裴在厚	觀川齋文庫	124
2001	孫泳準	孫泳準文庫	180
2002	金東煜	金東煜文庫	149

연도	소장자/기증자	문고명	기증 책수
2002	鄭鎭國	鄭鎭國文庫	586
2003	宮嶋博史	미야지마文庫	2,800
2003	중동학원		6,135
2004	張韋相	張韋相文庫	284
2005	宋浚弼/송인수, 宋載邵	恭山文庫	1,178
2007	權虎基		175
2007	李雲九	李雲九文庫	146
2012	崔晟均		155
2013	鄭太鉉		299
2014	李仁煥/李鎬元		270
2016	神野志隆光	神野志隆光文庫	698
2017	金時立	碧巖文庫	54,360
2017	鄭泰龍, 權相守		동100 양146
2018	강진원		동48 양212
2019	林泳/林燐澤	滄溪文庫 기탁	6,231

제시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존경각이 기증받은 도서는 전근대 동아시아학의 근간인 유교 경전, 족보, 희귀본 고문헌을 비롯하여 근현대 동아시아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외자료와 국내 유일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장서각의 마이크로필름도 소장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중국 국가 도서관 등의 희귀 마이크로필름 등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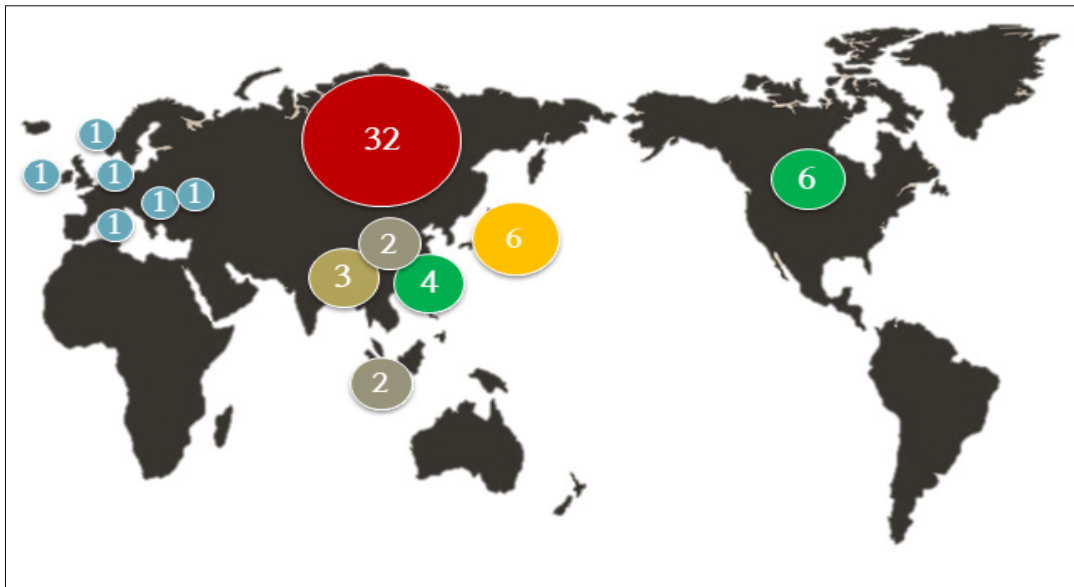
4. 영문학술지(SJEAS)의 간행과 학술네트워크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학 관련 국제학술지인 <SungkyunJournal of East Asian Studies>(SJEAS로 약칭)를 창간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연 2회 간행하고 있다. SJEAS는 동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기관을 목표로 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기획하고 창간한 것인데, 국내 동아시아연구 분야 최초의 국제학술지다. SJEAS는 세계 학계에 발신하여 위하여 학술지 간행을 위한 전담 연구원(교비로 채용)과 편집위원장¹⁷⁾과 편집위원,¹⁸⁾ 그리고 편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17) 편집위원장을 보면 처음 金時鄴 교수(성균관대 교수, 2001.4~2002.7)가 맡았고, 이어서 James B. Palais(시애틀 워싱턴대 교수, 2002.8~2006.9), Miyajima Hiroshi/B.C.A. Walraven(성균관대 교수/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유럽 한국학회 회장, 2006.10~2012.9), B.C.A. Walraven(2012.10~2018.9), Ross, King(캐나다 UBC, 동아시아학과 학과장, 2018.10~현재) 등이 맡았다.

을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네트워크를 원활히 하여 학술의 객관성을 높이고 세계 학계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 A&HCI(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2010년에 BAS(Th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에, 2011년에 SCOPUS와 2013년에 EBSCO에, 그리고 2017년에 Project Muse 등, 세계적인 DB 검색 사이트에 등재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SJEAS를 매개로 세계 학계에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국내의 연구자의 학술네트워크의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학술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SJEAS는 동아시아연구의 세계적 흐름을 주시하고 평가하는 리뷰 학술지로 세계 학계에 인지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향후 이 학술지를 통해 동아시아 연구의 이슈를 선점하고,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학술원은 국외 네트워크를 위하여 활발한 인적교류와 기관 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그간 해외 12개국 61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 교류 및 부정기 교류를 지속하였다. 아래는 구체적인 사례다.



해외 12개국 61개 명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SOAS(영국), Sorbonne 4대학(프랑스), Leiden(네덜란드), Oslo(노르웨이), NAPSA(루마니아), Sofia(불가리아), UCLA, Washington, Chicago, Michigan, Hawaii(미국), UBC,(캐나다), Beijing, Fudan, Tsinghua, CASS(중국), 도쿄대, 교토대(일본), Jawaharlal Nehru, Delhi(인도), Hanoi(베트남), Chulalongkorn(태국), UM, USM(말레이시아), NUM(몽골) 등

18) 편집위원의 경우, 한국, 일본, 홍콩, 유럽, 미국, 호주 등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관련 학계의 저명 학자로 구성하여 학술적 이슈와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학술원은 세계적인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틀 방식으로 정기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로 중국과 일본의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동아시아학의 장기 비전을 실현하였다. 하나는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와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매년 서틀 방식으로 공동 주최하는 정례 학술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정기적인 학술 이슈로 매년 학술교류를 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대학의 연구기관과의 교류

- ▶ 제1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知’의 유통” (2011, 京都大學)
- ▶ 제2회 “동아시아의 근대” (2012, 성균관대)
- ▶ 제3회 “동아시아의 ‘기억’” (2013, 東京大學)
- ▶ 제4회 “동아시아로부터 세계사를 본다/생각한다” (2014, 京都大學)
- ▶ 제5회 “동아시아를 사유한다 - 共通・差異, 關係-” (2015, 성균관대)
- ▶ 제6회 “아시아의 전쟁(Asian Wars)” (2016, 東京大學)
- ▶ 제7회 “동양문화연구의 기억과 유산” (2017, 京都大學)
- ▶ 제8회 “아시아의 여성” (2019, 성균관대)

중국사회과학원과의 교류

- ▶ 제1회 “자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출토 문헌과 호적·족보를 중심으로” (2011, 北京)
- ▶ 제2회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사(士)’” (2012, 서울)
- ▶ 제3회 “유가 문화와 동아시아 사회” (2013, 北京)
- ▶ 제4회 “동아시아에서의 고문헌의 유통과 문물교류” (2014.4.25.~26, 서울)
- ▶ 제5회 “유법 사상과 동아시아 지역사회” (2015, 中國 安徽)
- ▶ 제6회 “東아시아 역사상의 문화교류와 상호인식” (2016, 서울)
- ▶ 제7회 “동아시아의 전통질서와 그 변화과정” (2017, 中國 安徽)
- ▶ 제8회 “동아시아 역사상의 권력과 질서” (2018, 제주)
- ▶ 제9회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의 전승” (2019, 中國 곤명)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세계적 동아시아학 연구기관과 정기적 학술교류를 통해 세계 학계에 동아시아학의 이슈를 제시하며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가능성과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상시적 교류를 통한 R/C를 수행하며 동아시아학의 외연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R/C 단위의 국제 인적 교류와 공동 및 협력 연구의 강화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학 관련 공동연구와 협력

- ❶ 역사 인구학 연구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Family and Demography Network)
 - ❷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역사인구학자 연구 네트워크(East Asian Population Project)
 - ❸ 동아시아 문학 문화 연구회의의 정례 학술회의를 통한 식민지 시대 연구 네트워크(일본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주관)
-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학술원은 세계 학계와 소통하고 학술적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차세대 연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술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학술원은 2015년부터 IUC(Inter-Univ. Center for Korean Language Studies at SKKU)를 운영하고 있다. IUC는 북미 주요 5개 대학(UCLA, Harvard, UBC, USC, UM)과 공동으로 발족하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운영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다. 이것은 해외 한국학자들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학술 한국어 및 한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차세대 해외 한국학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IUC를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함은 물론 국제한국학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UC를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다. 그간 IUC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수료한 대학원 연구자는 총 14개국 29개 대학 49명이나 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은 일본 오카야마(岡山)대학, 중국 길림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년부터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자 교류, 공동교재개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문 후속세대와 연구자 간의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학의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동아시아 삼국의 교육 네트워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관 연구의 심화와 확산, 개인 연구자의 견인, 여기에 학문 후속세대의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IV. 동아시아학술원의 전망

동아시아학술원이 개원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다. 되돌아보면 그간 동아시아학술원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협업과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 연구의 통합, 대학의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결합한 전략, 학술 장에서 학술적인 장기 의제의 제안과 실현 방법론의 제시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소속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12명이 국내외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였고, 연구과제로 참여한 박사 86명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나 학술 연구기관에 진출한 바도 있다.¹⁹⁾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동아시아학술원의 성장은 한국인문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며 상생한 셈이다.

19) 이들이 진출한 국내 대학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롯하여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교수로 포진해 있으며, 외국 대학의 경우, 미시건대, 도쿄대, 호치민대, 산둥대, 중산대, 중국해양대, 남개대 등 해당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통일연구원 등의 국가 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과 그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 대학도 이전과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학령인구의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AI와 빅 데이터의 부상, 스마트 환경에 따른 교육·연구 관련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 비대면 강의 방식의 확산에 따라 대학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도 사회와 대학의 환경 변화에 예외가 되지 않을 터이다. 내부적으로는 분과 학문 중심의 수세적 방어와 학과 중심성의 강화, 학문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대응 전략의 부재, 대학재정의 감소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의 지원 축소 등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인문학을 위한 정부의 장기 정책의 부재와 획일적 지원방식, 타 대학 연구기관의 동아시아학술원 모델의 벤치마킹 등으로 인하여 동아시아학술원 모델의 상대적 우위 전략은 그 약효가 떨어진 지 오래다. 여기에 향후 사회 변화와 대학의 구조 변화 등에서 발생할 인문학의 위축은 동아시아학술원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 외부 연구비에 의존한 동아시아학술원의 운영과 학술의 비전도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학술원도 이제는 외부 연구비 수주에 기대 학술 정책과 비전의 운영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고민과 함께 그간의 틀과 다른 새로운 학술 비전을 위한 고민이 절실한 때다. 사실 재정적 뒷받침 없는 학술 비전의 제시는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학술원에 속한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집단 노력, 교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연구인력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학술원 소속연구자의 노쇠화와 함께 연구 동력의 정체로 자발적 참여와 집단 노력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동아시아학술원에 현재 안고 있는 난제다. 그런데도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첫걸음은 연구역량의 강화에 있음은 물론이다. 교내의 신진연구자와 결합하여 기존 R/C의 틀살한 운용과 학술 비전을 위한 역량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학 중심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부와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학문 후속세대의 수요 공급의 단절을 의미한다. ‘학부-대학원’의 체계적인 제도화를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부에 동아시아학의 제도적 자리는 필요하다. 대학 내에서 동아시아학 교육·연구의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장착과 유연한 인문학 틀의 확산에 하나의 걸림돌의 하나가 바로 학부의 부재다. 학부 내에서 유연한 형태나마 동아시아학 단위는 필요하다. 동아시아학은 인문학 내에서 융합학문을 위한 시금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은 인문학의 비전을 위하여 유연한 방식의 ‘텐트’를 제시하고, 그 텐트 안에 ‘동아시아학’의 학문 단위를 학부 단위에 진입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멀지 않아 한국의 대학은 기존 학문 단위로 구성된 방식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때 인문학은 전례 없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을 것은 자명하다. 주지하듯이 위기는 곧 기회를 동반한다. 향후 대학 내 학문 단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 학문의 틀을 넘어서는 유연성과 새로운 융합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 발굴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연구 통합 모델과 비전의 제시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소통능력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학의 사

회적 유용성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이 창안한 R/C형 연구·교육 통합 모델을 교내외에 확산하는 전략의 구상도 절실하다.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독자적인 학문 재생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이 보여준 그간의 성과와 대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부터 내부 동력을 재정비하여 이를 잘 갈무리하고, 그 내부로부터 다시 역량을 모아 향후 인문학과 대학 연구기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東方學志』 149, 2010.
- 진재교,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8, 2017.
- 동아시아학술원, 『BK21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인문·사회분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지원신청서, 1999.
- 동아시아학술원 제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2006.
-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 2007.
-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 한문고전번역 핵심인재 양성 사업: 소통·학술·창조적 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新교육 모델』 1~53면 참조.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Jin, Jae Ky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which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from the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stablished in 1958.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which opened in 2000, was a research institute to present a model of collaboration and convergence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the strategy of combining educational functions with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the proposal of academic long-term agendas, and the presentation of practical methodologies in the academic sphere, has drawn much attention from Korean universities and has been subject to benchmarking.

As a result of its efforts over the past two decades, twelve Ph.D.s from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nd the Translating Pre-modern Korean Text in Classical Chinese have got a professor position at university since 2002. Furthermore, while 86 Ph.D.s who participated in a research project have become a professor position at universities or as a researcher at academic institutes. The growth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new research and education as a research institute at a university drove the simultaneous growth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Key Words]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Digitalization of East Asian Studies, Integrated model of education and research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